

国家“十二五”少数民族文字规划项目



미니서재 · 세계경전문고

바리노뜨르담사원

빅토르 유고 저
홍성일 석소화 이봉희 역



료녕민족출판사



배리노뜨르담사원

빅토르 유고 저
홍성일 석소화 이봉희 역



료녕민족출판사

© 洪成一, 石少花, 李奉熹 2015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巴黎圣母院: 朝鲜文 / (法) 雨果著; 洪成一, 石少花, 李奉熹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5.12

(小书房·世界经典文库)

ISBN 978-7-5497-1246-5

I. ①巴… II. ①雨… ②洪… ③石… ④李…
III. ①长篇小说—法国—近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565.4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5) 第 319129 号

巴黎圣母院

BALISHENGMUYUAN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 刷 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 面 尺 寸: 170mm×240mm

印 张: 11

字 数: 180 千字

印 数: 1-1500

出 版 时 间: 2015 年 12 月第 1 版

印 刷 时 间: 2015 年 12 月第 1 次印刷

责 任 编 辑: 张学林

封 面 设 计: 杜 江

责 任 校 对: 李 华

标准书号: ISBN 978-7-5497-1246-5

定 价: 30.00 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 址: www.lnmzchs.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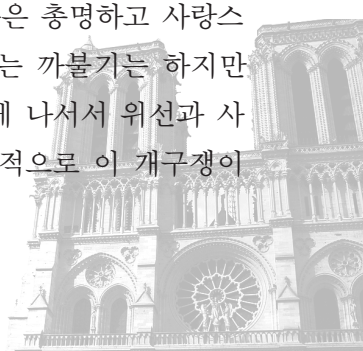
머리글

학교에 다닐 때, 나는 언제나 침실에 박혀 책을 읽었다. 고금중외의 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읽었다. 오늘날 내가 문학창작의 길에 오를수 있는것도 그때 많은 책을 부지런히 읽은 덕분이라.

어떤 책은 일찍 접하지 못한것을 한탄하게 하며 수불석권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주는 책들은 어느 하나 고전명작이 아닌게 없었다. 이런 책들은 시간의 긴 강을 뛰어넘어 세월의 짙은 향기를 뿜으며 영원한 빛을 뿌린다. 이런 경전작품을 읽는다는것은 아름다운 문학적향수일뿐만아니라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전명작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을 선양한다. 《미니서재·세계경전문고》에 수록된 작품들은 바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경전명작들이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리상주의를 높이 선양하였다. 작가 니콜라이·오스트롭스키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강철은 뜨거운 불과 급격한 랭각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지력이 무엇인지, 의지력은 어떤 놀라운 힘으로 곤난과 좌절을 이겨내는지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툼·소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호방하고 통쾌한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개구쟁이 톼·소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모험소설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작품의 하나로 일컬어졌다. 톼은 총명하고 사랑스러우며 천성적으로 용감과 모험정신을 지녔다. 그는 까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담하게 승인할뿐만아니라 용감하게 나서서 위선과 사악을 사정없이 폭로한다. 이런 뚜렷한 성격은 숙명적으로 이 개구쟁이



로 하여금 문학사상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되게 하였다.

한편 《로인과 바다》는 “사람은 꺾멸될수는 있으나 패배할수는 없다.”는 강한 사나이의 정신으로 무수한 독자들을 정복하고 큰 공명을 일으켰다.

평소의 생활속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명작을 추천해주며 열독하라 하는데 이는 나를 매우 난감하게 만든다. 명작은 세월의 세례를 받아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지만 많은 작품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작품이 아니기에 언어가 비교적 어렵고 언급된 내용도 비교적 복잡하며 이야기도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내용이 아니기에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미니서재·세계경전문고》는 경전명작을 선정하여 조선족언어전문가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단어나 구절, 이야기줄거리 등에 대해 알심들여 수정번역하였다. 《로인과 바다》는 간결하고 힘있으며 《로빈슨표류기》는 생동하고 진수를 전하며 《톰·소야의 이야기》는 유모적이고 흥미로우며 《셜록홈즈의 탐정기》는 사유의 교전이 빈틈없어 아이들에게 많은 재미와 계시를 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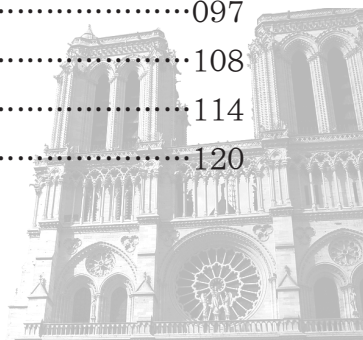
《빠리노뜨르담사원》에서는 빠리의 노뜨르담 성당의 종지기인 카지모도가 아름다운 집시녀인 에쓰메라르드를 만나 벌이는 사랑과 갈등을 그리고있다. 소설속에는 카지모도와 에쓰메라르드 외에도 페뷔스, 프롤로, 클로팽, 그랭구아르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극을 풍요롭게 하며, 작가는 15세기 프랑스 빠리의 노뜨르담 대성당에 얹힌 이들 인물들의 운명과 프랑스 사회상을 장대하게 묘사하고있다.

친애하는 어린 독자 여러분, 이 총서를 읽으면서 애써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많은것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차 레

제1장	출연을 앞두고있는 주인공	001
제2장	카니발후의 죄악	007
제3장	그랭구아르의 결혼 첫날밤	014
제4장	업둥이 카지모도의 옛이야기	022
제5장	노뜨르담사원의 종지기	026
제6장	생 마르탱 드 투르의 사제	030
제7장	황당한 재판	033
제8장	쥐구멍	036
제9장	옥수수떡 이야기	038
제10장	물 한방울과 눈물 한방울	044
제11장	소녀 마음속의 비밀	048
제12장	성당의 종소리	059
제13장	검은 옷차림의 두 사나이	064
제14장	옥설이 빚어낸 효과	069
제15장	도사귀신이 출몰하는 밤	074
제16장	자정의 살인사건	080
제17장	금화의 마법이야기	086
제18장	서로 다른 세 사람의 마음	097
제19장	넋을 잃은 사람	108
제20장	카지모도와 집시아가씨	114
제21장	라 에쓰메라르드와 중대장	120



제22장	포르트 루주의 신비한 열쇠	128
제23장	그랭구아르의 묘책	134
제24장	거지건달.....	139
제25장	바보친구.....	141
제26장	샤토페르의 구원병	155
제27장	조그만 신작	157
제28장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것	162



제1장

출연을 앞두고있는 주인공

1482년 1월 6일, 빠리성내의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노뜨르담사에서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또한 빠리성내의 아득한 옛날부터 한데 합쳐진 이 중의 축제, 공현절과 광인절이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이날 그레브 광장에서는 기쁨의 불놀이가, 브라크레배당에서는 5월의 식목행사가, 그리고 재판소에서는 연극이 있기로 되어있었다.

사실 재판소의 연극은 점심 12시에 시작할것인데 이러면 빠리에 오고가는 사신들에게 편의를 봐줄수 있기때문이다.

많은 군중들은 아침부터 재판소 문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먼곳에 하품을 하며 두손을 주머니에 단단히 넣고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수 많은 구경군들은 꼭두새벽부터 재판소앞에서 추위에 떨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맨먼저 들어가려고 큰 문앞을 가로막고서 밤을 새웠노라고 단언까지 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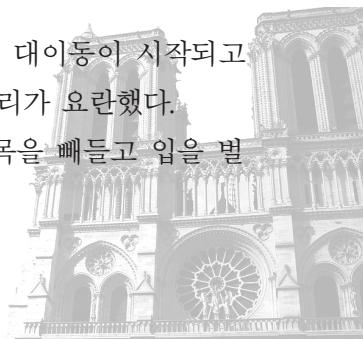
군중들은 시시각각 뻣뻣해지고 오랜 기다림에 피곤하기 그지없었다. 이 겹쳐지고 짓눌리고 으깨지고 숨이 막힌 군중의 아우성은 귀청을 찢는듯한 지독한 어조를 빔어내고있었다.

재판소의 큰 시계가 정오의 12시를 쳤다.

“와!”

광장의 군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이어서 대이동이 시작되고 발과 머리들이 마구 움직이며 기침소리와 코뉘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런 뒤에는 쥐죽은듯한 고요, 모든 사람들이 목을 빼들고 입을 벌



리고 대리석탁자쪽으로 눈길을 돌리고있었다. 무대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길이 플랑드르의 사신들이 앉을 단쪽으로 쏠렸다. 문은 여전히 닫혀있었고 단은 비어있었다.

“정말 참을수 없는 기다림이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지만 무대는 잠잠했다. 무대우에 그림자 하나 없었고 단에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

“연극을 시작하라! 연극을 시작하라!”

사람들은 나직이 웅성거리고있었다. 사람들의 머리는 술렁이었고 아직 우르르 울리고만 있는 폭풍우가 이 군중들위로 떠돌고있었다.

이때 무대우에 탈의실의 휘장이 올라갔다.

어떤 인물이 걸어나왔는데 그 인물은 매우 불안한듯이 사지를 떨고 꾸뻑꾸뻑 절을 하면서 대리석탁자의 가장자리까지 나왔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추기경각하앞에서 ‘성모마리아의 공정하신 심판’이라는 제목의 가장 아름다운 우화극을 상연하고 랑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저는 주피터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추기경각하께서 도착하시는데로 저희들은 시작하겠습니다. 추기경각하께서는 지금 오스트리아공작(公爵)의 고귀하신 사절단을 동반하고 계시운데 이 사절단은 이 시간 현재 보데성문에서 대학 총장님의 연설을 듣느라 지체하고있습니다. 존귀한 추기경각하께서 도착하시는데로 저희들은 시작하겠습니다...”

한참이 지나 높고낮은 음악소리가 무대장치안쪽에서 들려왔다. 휘장이 올라갔다. 요란스럽게 분장하고 화장한 네 인물이 휘장뒤에서 나와 무대의 사다리를 기여올라 단우에 오른 다음 관객들앞에 늘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였다.

서곡이 그치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때 무대전용의 문이 열리면서 무대감독이 우렁찬 목소리로 “부르봉 추기경각하께서 도착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

추기경의 입장은 청중을 혼란에 빠뜨렸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단쪽으로 돌아갔고 이구동성으로 “추기경이다! 추기경이다!”라며 되풀

이했다.

장내의 음악과 서시소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사라지고말았다.

추기경은 단으로 들어오는 문앞에서 잠간 걸음을 멈추었는데 시선은 보기에 진지하였다. 장내는 더욱 떠들썩해졌다. 저마다 그를 더 잘 보려고 서로 앞다투며 목을 길게 내밀었다.

추기경은 서민에 대해 하느님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무슨 생각에 잠긴듯한 표정으로 벨벳의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수행단도 뒤따라 단으로 올라갔다. 정면 관람석 맞은편에 있는 관객들은 법석거리기 시작하였고 추기경에 대해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이때 수위가 우렁찬 목소리로 오스트리아공작 사절단 여러분의 도착을 알렸다. 추기경은 비길데없이 고귀한 표정으로 바로 문쪽을 돌아보았는데 아주 우아하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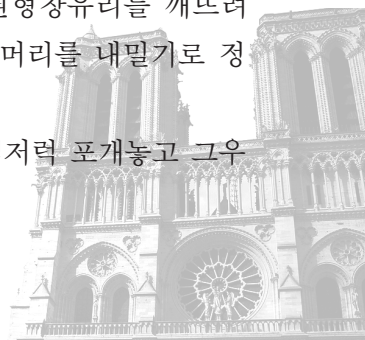
만장의 관객들 역시 머리를 돌려 그쪽을 들여다보았다.

이때 오스트리아공작인 막시밀리안과 그들의 사신 48명이 도착하였는데 사신들의 엄숙한 태도가 추기경옆의 성직자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장내는 귀족은듯이 조용해졌고 가끔 속삭임만 들릴뿐이었다. 래빈들은 제각기 자기의 성명과 칭호를 수위에게 태연스레 일러주면 수위는 그 성명과 칭호를 군중에게 한참 통보해야 했다. 그 괴상마축한 이름들은 단아래의 시민들이 제각기 전하는바람에 뒤죽박죽 섞여서 엉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들 재미있게 들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자 코프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은 흥미진진하게 함께 작업에 착수하였고 대리석탁자의 맞은편에 자리하고있는 작은 레배당이 유머와 골계극 무대로 선정되었다. 레배당 문우의 고운 원형창유리를 깨뜨려 동그란 구멍을 내고 그리로 공연자들이 한 사람씩 머리를 내밀기로 정해졌다.

그들은 또 어디선가 술통 두개를 가져다가 그럭저럭 포개놓고 그우



로 기여올라가기만 하면 구멍을 낸 유리창으로 머리를 내밀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코믹한 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최측에서는 경쟁자마다 남녀를 막론하고 제각기 얼굴을 가리고 레배당안에 숨어있도록 규정해놓았고 출연할 때가 되어야 얼굴을 드러내게 하였다.

순식간에 레배당은 경쟁자들로 가득 찼다.

레배당의 문이 닫히고 코프놀은 자기 자리에서 참가자가 순서대로 출연하도록 지휘하고있었다. 장내가 시끌벅적한 와중에 추기경은 그랭 구아르 못지 않게 당황하였다. 그는 공무와 만종기도를 핑계삼아 자기의 수행원들과 먼저 가버렸다. 그가 나타날 때 그렇게도 법석을 떨던 군중이 그가 떠날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나타난 얼굴은 아가리를 짝 벌리고 이마는 제국시대 경기병의 승마용 장화처럼 쪼글쪼글 주름이 잡혔다. 구경군들은 이 코믹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칠줄 모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번째 세번째 뒤이어 또 하나의 얼굴이, 그런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연해연방 그 창문구멍으로 나타났다. 형형색색 괴상망측한 세모꼴에서 사다리꼴에 이르기까지 원뿔에서 다면체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기하학적형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분노에서 음란에 이르기까지 온갖 표정들이 있었다. 갓난아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의 얼굴이 있었다. 온갖 종교적인 환상들, 짐승들의 낯짝들을... 베네치아 사육제의 온갖 가면들을 전시하는것만 같았다. 이젠 학생도 사절도 시민도 남자도 여자도 없었다. 모든것이 한타령이 되어 제멋대로 떠들어대고있었고 온 장내는 이제 뻔뻔스러움과 쾌활함의 거대한 도가니에 불과하였다. 입마다 고함지르고 눈마다 번쩍거리며 얼굴마다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

갑자기 만장에 박수갈채가 터졌고 간간이 환호성도 울렸다. 광인교황이 뽐힌것이다.

원화창의 구멍에서 드러낸것은 희한한 찌프린 상이었다. 사면체의 코, 말발굽같은 입, 오른쪽눈은 하나의 커다란 무사마귀아래 완전히 사

라져버린 반면 텅수룩한 붉은 눈썹에 가로막힌 조그만 왼쪽눈, 요새의 총안처럼 여기저기 빠진 고르지 못한 이발, 그 이들중 하나가 코끼리의 어금이처럼 뻗어나온 굳어진 입술, 두갈래로 갈라진 턱, 그리고 특히 그 모든것 위에 번져있는 표정, 심술과 놀라움과 슬픔의 그 혼합...

만장에 환호소리가 터졌고 그 찌프린 상이 바로 그의 얼굴이었던것이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카지모도다! 그 최고의 종지기! 노뜨르담사원의 꼬추 카지모도다! 애꾸눈 카지모도다! 절름발이 카지모도다!”

이때의 카지모도는 이번 시합의 주인공으로 되었다. 카지모도는 우두커니 레배당 문앞에 서서 우울한 표정을 하고 찬탄하는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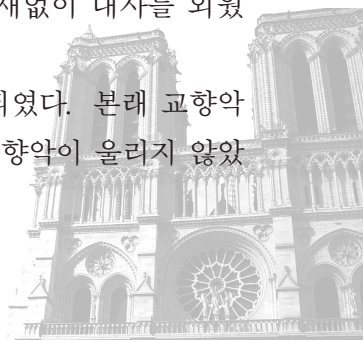
장내의 모든 지지, 하인, 소매치기들은 학생들과 함께 줄을 지어 서기실로 갔다. 그들은 도중에 광인교황의 마분지 삼중관과 시시한 도포를 챙겨왔다. 카지모도는 눈 하나 깜박 안하고 순순하면서도 우쭐한 모습으로 그들이 자기를 치장하게 버려두었다. 그러고나서 사람들은 그를 알록달록하게 장식한 들것우에 얹히고 광인계모임의 12명 우두머리가 그것을 어깨우에 들어올렸다.

애꾸눈의 거인 카지모도의 발밑에 인파가 북적거리고있었다. 이것을 보니 그의 우울한 얼굴에는 기쁨이 활짝 피여올랐고 일종의 고통스럽고 경멸적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런 뒤에 람루하고 요란스러운 행렬이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관례에 따라 그들은 재판소의 회랑안에서 한바퀴 돌고난후 빠리의 거리에서도 행진을 할것이였다.

이 모든 장면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랭구아르와 그의 희극도 동시에 출연하고있었다. 배우들은 그의 감독밑에서 설새없이 대사를 외웠고 그도 흥미진진하게 듣고있었다.

이때 성모 마리아역을 하는 배우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래 교향악으로 이 웅장한 출연효과를 돋구어주어야 하는데 교향악이 울리지 않았



다. 그랭구아르는 그때야 광인교황의 행렬에 그의 악대가 끌려가버린것을 알아챘다.

젊은 장난꾸러기 하나가 갑자기 웨쳤다.

“라 에쓰메라르드! 라 에쓰메라르드가 광장에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실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술같이 모두 창문으로 뛰여가 벽을 기여오르면서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라 에쓰메라르드! 라 에쓰메라르드...”

그가 대리석탁자쪽을 돌아보니 연극은 중단되어있었다. 바로 주피터가 등장할 순간이었는데 주피터는 무대아래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마지막에 퇴각했다.

그는 꾸불꾸불한 재판소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 빠리놈들! 얼빠진 녀석들아! 이놈들이 소리마다 부르는 라 에쓰메라르드는 이집트말이겠지...”



제2장

카니발후의 죄악

밤은 일찍 찾아왔다! 정월의 찬바람이 노뜨르담사원의 높은 담을 스쳐 캄캄한 밤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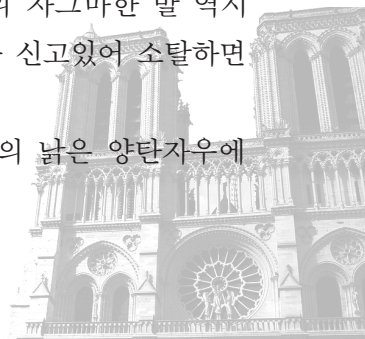
재판소에서 나와 그레브광장에 도착한 그랭구아르는 이미 얼어있었다. 그는 시끌벅적한 사람들과 장 푸르보가 그린 기발들을 피하기 위하여 다리를 돌아서 왔다. 그러나 주교의 물방아가 돌아가는바람에 지나가는 그에게 물을 튀겼다. 뿐만아니라 그는 연극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욱 불쌍해보이는것 같았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서 타오르고있는 불을 향해 다가갔지만 수많은 군중이 그 주위를 빙 둘러싸고있었다.

알고보니 군중들과 불 사이에 비여있는 넓다란 공터에서 아가씨 한 명이 춤을 추고있었다. 그 아가씨는 하느님이 보낸 천사나 선녀 같았다. 그랭구아르가 회의적인 철학자요, 아이러니컬한 시인이였다 할지라도 처음 순간에는 해답을 내릴수가 없었으니 그토록 그는 그 눈부신 영상에 매혹되었던것이다.

그녀는 키가 크지는 않으나 커보였으니 그만큼 그녀의 날씬한 몸매는 우뚝 솟아있었다. 그녀는 거무스름했는데 낮이라면 그녀의 살갗이 저 안달루시아나 로마의 여성들 같은 아름다운 금빛광택을 내고있을것임에 틀림없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녀의 자그마한 발 역시 안달루시아 여성다왔을것이, 그리고 그 고운 신발을 신고있어 소탈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발아래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페르시아의 낡은 양탄자위에



서 춤추고 빙글빙글 돌고있었다. 뱅글뱅글 돌면서 그 반짝이는 얼굴이 사람들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커다란 검은 눈은 사람들에게 번개불을 던졌다. 그녀는 뱅글뱅글 돌면서 탬버린을 탕탕 치었다. 그녀의 머리와 목은 길고 유연하며 몸은 날씬한 나비처럼 발랄한 자태를 갖추었다. 바람에 의해 부풀어오르는 치마자락밖으로 드러나는 섬섬한 다리, 검은 머리결,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는 두눈과 더불어 그녀는 완벽에 가까운 무용수였다.

그랭구아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 숲속에서 사는 녀신이나 선녀가 아닐가...”

그때 그 “녀신”의 땅아올린 머리가 풀려 거기에 꽂혀있던 노란 동조각 하나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아, 아니잖아! 집시계집애로군!” 그랭구아르는 단번에 이 말이 튀어나왔는데 말이 끝나기도전에 모든 환상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다시 춤추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땅바닥에서 두자루의 칼을 들어 칼끝을 이마에 대고 자기가 도는것과 반대방향으로 그것을 돌렸다.

과연 한낱 집시녀인에 불과했다. 비록 그랭구아르는 환멸을 느꼈지만 화톳불에 환히 비추어진 집시녀인은 여전히 화색이 돌고 매력이 넘쳤다.

빙 둘러서있는 군중의 얼굴에 불빛이 뛰놀고 “기둥의 집”의 낡아쭈그러진 검은 정면우에도 돌벽우에도 사람들의 그림자로 흔들리고있었다.

그 불빛이 주홍빛으로 물들이고있는 수천의 얼굴가운데 다른 누구보다도 더 춤추는 아가씨를 골똘히 들여다보고있는것 같은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준엄하고 침착하고 침울한 사내의 얼굴이였고 주위 군중에 가려져있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이 사나이는 서른다섯살이 넘어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머리여서 관자놀이에 반백이 된 듬성듬성한 머리털이 몇몽치 겨우 있을가말가 하였고 높고 넓은 이마에는 주름살이 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쑥 들어간 눈에는 비상한 젊음

이 타오르는 생명이 깊은 정열이 깃들어있었다.

그는 그 눈을 집시녀인에게서 줄곧 떼지 않고있었는데 그 열여섯살의 아가씨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미친듯이 춤을 추고 사뿐사뿐 뛰고있는 동안에 이 사나이의 몽상은 더욱 침울해져가는듯했다. 때때로 미소와 한숨이 그의 입술우에서 마주치곤 했으나 미소는 한숨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아가씨는 숨이 차서 이윽고 춤을 멈추었고 민중은 신나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러 은화와 동전이 비오듯 쏟아지고있었다. 그녀는 그랭구아르앞을 지나갔다. 그랭구아르가 되통스럽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 지라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사실 그의 호주머니는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그 아릿다운 아가씨는 거기에 선채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탬버린을 내밀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랭구아르는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만약 호주머니안에 페루의 금산이 있었다라면 틀림없이 춤추는 아가씨에게 주었을것이다.

다행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나서 그를 도왔다.

“꺼져버리지 못하겠느냐, 집시메뚜기야?” 하고 날카롭게 웨치는 목소리가 광장의 구석에서 솟아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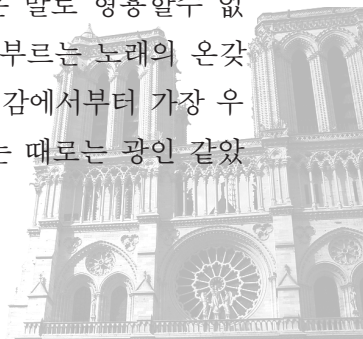
그 고함소리는 아가씨에게 겁을 주었지만 그곳을 얼쩡거리던 한패의 아이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투르 롤랑탑의 은자다...” 아이들은 마구 깔깔거리면서 웨쳤다.

모두들 “기둥집” 쪽으로 뛰어갔을 때 그랭구아르는 춤추는 아가씨가 당황한 틈을 타서 사라져버렸다.

한참 지나 어느 구석에서 감미롭기 그지없으면서도 이상야릇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젊은 집시녀인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던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수 없이 매혹적이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온갖 변화를 따르고있었다. 그녀의 표정도 자유분방한 령감에서부터 가장 우아한 품위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무쌍하였다. 그녀는 때로는 광인 같았



고 때로는 너왕 같았다.

그랭구아르는 자기 눈에 눈물이 솟는것만 같았다. 사실 그녀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기쁨을 나타내고있었고 그녀가 새처럼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고요하고 태평하기때문이었다.

집시아가씨의 노래는 그랭구아르의 몽상을 흐려놓았으나 그것은 백조가 물을 흐려놓는것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노래를 만사를 잊고 듣고 있었다. 이는 오래동안 그가 처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은것이였다.

“아가리 닥치지 못하겠느냐, 지옥의 매미야?”

가엾은 “매미”는 똑 그쳤지만 구석에 있는 그랭구아르는 급히 귀를 막았다.

구석에 처박혀있는 못된 수녀는 몇번이나 이 집시아가씨를 공격하였다.

이때 광인교황의 행렬이 그들의 주의력을 분산시켰다. 이 행렬은 술한 거리를 쏘다닌 뒤에 화불들을 켜들고 와글와글 떠들면서 그레브광장으로 쏟아져나왔다.

이 행렬은 갈수록 커졌다. 재판소에서부터 출발하여 도중에 빠리에 있는 모든 불량배며 한가한 도적놈들이며 놀고있는 류량자들로 조직되고 보충되였다. 그레브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나타내고있었다.

이 군중의 한복판에는 광인극단의 대신이 초불들로 밝혀진 들것을 어깨에 메고 오고있었다. 그리고 이 들것우에는 석상을 짊고 도포를 입고 삼중관을 쓴 새로 뽑힌 광인교황인 노뜨르담사원의 종지기 곱추 카지모도가 빛나고있었다.

카지모도는 평생 처음으로 자존심을 맛보는 재미가 느껴졌다. 그는 여태껏 모욕과 제 처지에 대한 경멸과 제몸에 대한 혐오감밖에 몰랐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리 귀머거리라 할지라도 제가 미움받고있다고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명실상부한 교황으로서 군중의 존경과 박수갈채를 진짜 교황처럼 즐기고있었다.

그래도 새로 뽑힌 광인교황은 아직 자기가 불러일으킨 감정과 군중